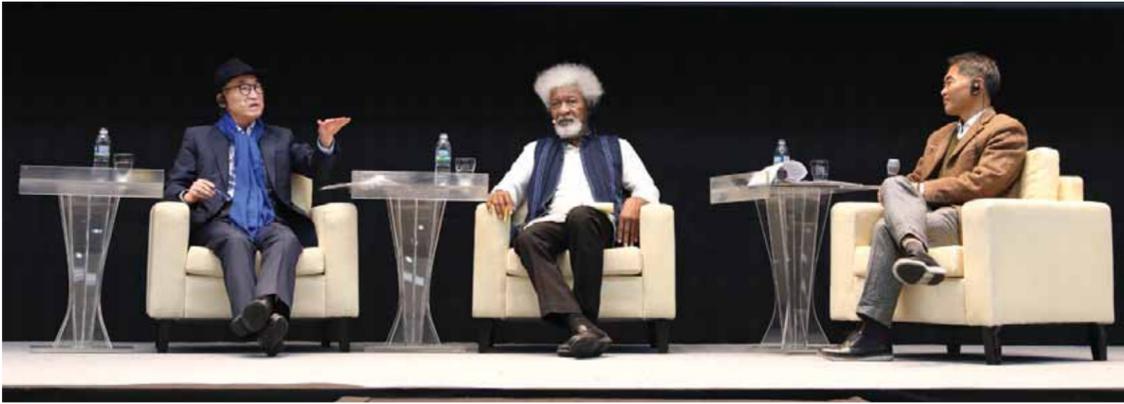


“절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문학” “경계를 넘어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나이지리아 작가 웰레 소잉카(가운데)와 고은(왼쪽) 시인이 지난 4일 아시아문화전당 콘퍼런스홀에서 신준봉 중앙일보 기자 사회로 특별대담을 나누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아시아문화페스티벌 기조강연과 소잉카-고은 특별대담

지난 4일 폐막한 제1회 아시아문화페스티벌의 초고 하이라이트는 아프리카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웰레 소잉카(83)와 한국의 국민시인 고은(84)의 특별대담이었다. 폐막을 앞두고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두 거장의 대담은 미래의 지평 앞에서 무엇이 희망과 절망의 목욕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자리였다.

두 문인은 독재정권에 맞서 저항하다 수감의 고통을 지닌 공통점이 있다. 고은은 80년 내란음모 사건에 투옥돼 육군 교도소에 있을 때 '만인보'를 생각했고 '검은 대륙을 고발한 흑인 문학의 승리자'로 불리는 소잉카는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작품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대담은 신준봉 중앙일보 기자의 사회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두 문인의 대담.

고은=실례를 무릅쓰고 소잉카 선생의 인상을 말하고 싶다. 산중 절간의 한쪽은 청산, 다른 한쪽은 구름이다. 청산은 변함이 없고 백운(白雲)은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이다. 소잉카 선생은 구름을 머리에 이고 있는 세상을 초월한 인상이다.

소잉카=고은 시인 같은 정신세계를 지닌 문인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다. 그와 교류를 한 지 오래 되었다. 구름이 대지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문학도 땅으로부터 흡수하는 것이다. 구름은 산 너머로 사라진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문학의 공통점은 자연인 것 같다. 문학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인간의 감성에 자연을 통합해 바라본다.

고은=유럽은 사실 오랫동안 여러 나라로 쪼개져 싸운 데다, 민족주의 제국주의를 기치로 다른 지역을 짓밟은 역사다. 지리적 측면 외에도 백인종, 라틴어 등 동일한 측면이 많다. 그에 비해 아시아는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앞으로 서구 문학이 침체되고 성찰의 시간이 다가오면 아시아 문학, 아프리카 문학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소잉카=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전 양상 중 하나가 젊은 여성 작가들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솔

“글을 쓴다는 것은 정치·경제적 상황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다는 확인 작업”
“상상력의 영토로 출발할때 오직 하나의 적은 권력”

직히 정치적 저항은 어렵다. 그러나 뛰어난 작품이 여성 아프리카 작가에서 나오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이 문학에 기대는 건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정치, 경제적 상황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상하는 문학이 신성모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 일테면 종교적 근본주의 움직임 같은 것이다.

고은=문학이 20세기 초의 황금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어떤 이들은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근대문학의 종언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어느 나라에서는 시인이 죽었을 때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 위상이 많이 추락해 있다. 그럼에도 시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우주 전체의 운율과 파동이, 파도와, 비가, 이슬이 모두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잉카=카메라의 보급과 영화, 영상의 시대가 확대되면서 문학이 죽고, 연극이 죽고, 예술 전반이 사라질 것이라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미술전을 가 보면 그 캔버스 안에 에너지가 엄청나다. 영화와 영상이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와 문학은 같이 성장하고 있다.

고은=소잉카 선생이 경계를 이야기했는데, 사랑과 생물이 있는 한 경계라는 체제는 만들어진다.

금성이 있어 화성이 있고 지구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처럼 경계넘기나 벗어나기 역시 경계를 대전제로 한다. 경계를 넘는 행위가 새로운 경계를 연다.

소잉카=전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이 경계를 너무 강화해서 창의력을 말살시키려 하면 문제가 된다. 한편으로 경계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경계를 뚫고 나가야 한다. 반대편 쪽에 더 많은 풍요가 형성되도록 말이다.

한편 특별 대담에 앞서 웰레 소잉카는 콘퍼런스홀에서 '아프리카가 아시아에게'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소잉카의 강연 주제는 “시는 권력의 안티 테제이자 경계선의 부정”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는 “누군가가 창의적인 소명에 헌신할 때, 그는 한 사람의 탐험가가 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상상력이란 기능적으로 우리가 다른 삶, 다른 경험 양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출발한다는 것은 자유의 정수이며 그 엄청난 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적이 있는데 그것은 ‘권력’”이라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소잉카는 “우리가 상상력의 영토로 출발할 때 우리는 해방을 가장 오연되지 않은 형태로, 아무런 자격 제한 없이, 경험하게 됨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황해의 랩프는 그것이 아무리 어둠 속에서 빛나도 해도, 보편적인 ‘개명’(Enlightenment)의 해가 뜨면 거기에 굴복해야 한다”며 “전세계적인(보편적인) 시 정신은 상상력이라는 힘을 타고 난 모든 생명체에서 그 탐험가를 격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잉카는 강연 뒤 이어진 언론과의 대화에서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한 소회도 밝혔다. “주위에서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걱정하며 만류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만, 한반도 상공 전역에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시점에 최초의 아시아 문학축제인 한국에서 열리는 건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중수묵교류전 ‘필가묵무’전 의재미술관 24일까지



▶천상보 작 '죽보평안만원춘'

한국과 중국 수묵화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의재미술관은 오는 24일까지 한중수묵교류전 ‘필가묵무(筆歌墨舞)’전을 개최한다.

의재미술관은 지난 2004년부터 중국의 관산월 미술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의 수묵화에 대한 고찰을 계속해 왔다. 14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에서는 국내 작품 23점과 중국 작품 19점이 관객들을 만난다. 각 작가들은 수묵의 전통을 지켜

나가는 한편 재해석을 통해 수묵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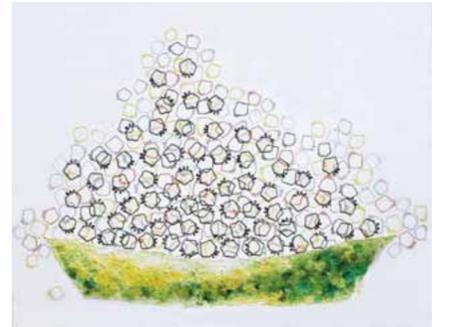
전시 주제 ‘필가묵무(筆歌墨舞)’는 ‘붓의 기운이 먹으로 생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 작가로는 강호생, 구지희, 김대원, 김문철, 김영삼, 김영소, 김영실, 김운찬, 박소영, 박태후 씨 등이 참여하며 중국작가로는 천상보, 천진위, 추더화, 차오잉양, 덩이엔궈, 덩롱빈 판양 등이 참여한다. 문의 062-222-30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은숙 초대전

LH휴광갤러리 30일까지



▶'BOB Green-dividual'

이은숙 작가 초대전이 광주 LH한국도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1층에 자리한 LH휴광 갤러리에서 30일까지 열린다.

“BOB”, “Flower”, “Friend” 3개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캔버스에 아크릴과 와이어, 모래, 계란껍질, 아크릴미디엄 등을 활용한 작품 30점을 만날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음식인 ‘밥’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는 그릇에 담긴 밥알을 인간 군상으로 묘사하고 밥과 밥그릇의 의미를 나와 타인의 교류, 관계로 설정했다.

와이어를 활용해 선과 면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입체감을 표현한 ‘Flower’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

는 나와, 나라는 각각의 존재들이 만들어낸 그룹(군상)을 표현하고 있다. ‘Friend’는 작가가 그동안 세상에 소통해온 가장 통로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이미지를 나무판 수백여 개를 모아 하나로 형상화하고 각각의 나무판에 소통해온 인물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조선훈 서양학과와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공부한 이 작가는 지난 9월 G&J광주·전남 갤러리 작가지원 대관 공모에 선정돼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순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작가는 지금까지 7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광주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내달 2일까지 광주여성스토리텔링 공모전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오는 12월 2일까지 ‘제6회 광주여성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내용은 광주지역 여성들의 생활상을 비롯해 역사, 인물, 문화, 공동체, 경제활동 등 삶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자원으로 이뤄진다.

▲광주여성사로 기록될 만한 역사 기록이나 증언·목격담 ▲광주여성단체 활동의 역사 및 과정

과 연계한 이야기 ▲광주여성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활동을 보인 지역여성 이야기 ▲여성소모임, 도서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 여성 공동체 이야기 등이 소재가 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7일 여성그린나래상(1명·75만원) 등을 각각 선정해 시상할 방침이다. 문의 062-670-0535. /전은재기자 ej662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여기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